

Global Market Report

국제 통상환경 변화와 글로벌 생산기지 변화 동향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조사개요

- 1 1. 조사배경 및 목적
- 2 2. 조사내용

II. 조사결과

- 3 1. 27개 기업의 이전추진 사례 발굴
- 5 2. 국별 기업 유출입동향
- 6 3. 주요 생산기지 이전사유
- 7 4. 국별 기업 유입사유
- 8 5. 국별 기업 유출사유

III. 시사점

- 9 1. 국제분업구조 재편
- 9 2. 통상환경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
- 10 3. 동남아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개선에 주목

첨부1 국가별 동향

- 11 1. 중국
- 16 2. 베트남
- 20 3. 인도네시아
- 25 4. 태국
- 28 5. 말레이시아
- 32 6. 멕시코

첨부2 조사국가에서 포착된 주요기업 이동 동향 사례

- 36 1. 중국
- 40 2. 베트남
- 43 3. 인도네시아
- 44 4. 태국
- 46 5. 말레이시아
- 47 6. 멕시코

요 약

□ 조사개요

- (조사목적) TPP 등 통상환경변화에 따른 글로벌 생산기지 이전동향 파악
- (조사국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6개국
 - * 글로벌 생산기지 중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직·간접 관련이 있는 국가
- (조사내용) 2016년 전후 각 2년간 해당국 소재기업의 생산기지 이전동향
 - 27개 기업, 31개 사례의 생산기지 이전 추진 사례 발굴

□ 조사결과

- (이전국가) 순수입기업 수는 베트남이 최다, 순수출기업 수는 중국이 최다
 - 베트남(유입 15개사 : 유출 1개사), 멕시코(3:0), 인도네시아(2:2), 말레이시아(2:2), 태국(1:3), 중국(3:11)
- (이전업종) 섬유·의류 업종 이전 사례가 가장 많음.
 - 섬유·의류(14개사), 전자제품(5), 가전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이상 2) 신발, 화장품, 휴대폰, 기계부품, 석유화학, 항공기(이상 1)
 - 업종별 이전희망 국가로는 섬유·의류업은 베트남으로, 반도체, 항공 등 첨단·고부가가치 업종은 중국으로 이전 및 투자확대 추진 중
- (이전사유) 무역협정활용이 전체 분석사유 45개 중 23개로 최다
 - 무역협정활용(23개), 비즈니스 환경변화(12개), 경영전략 변화(10개)
 - 세부사유는 TPP활용(14개), 경영전략(10개), 인건비(9개) 순

□ 시사점

- 노동집약산업은 베트남, 첨단산업은 중국으로 집중
 -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에는 저렴한 인건비와 무역협정활용을 목적으로 노동집약형 산업이, 중국에는 인건비 상승과 중국의 산업고도화정책으로 인한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이 이전하는 등 국별 이전업종 확연히 구분
- TPP가 생산기지이전의 주요원인
 - 무역협정, 특히 TPP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밝혀졌으며, 원산지 규정, 협정 참여국가 등이 생산기지 이전의 주요원인임.
 - 향후 TPP발효, RCEP협상 등 주요무역협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별 생산기지 이전의 비교우위 변화할 전망
 - 동남아 국가들이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무역협정 참여 등 대내외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국별 진출 비교우위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동 지역 진출희망기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I |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최근 AEC 출범, TPP 타결, AIIB 출범 등 국제통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주요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 이동이 목격되고 있음
- 주요기업의 이전동향 파악 및 이전원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생산기지로 부상하는 지역과 해당지역의 유망진출 산업을 확인하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자 함

※ 주요통상환경 변화 ※

< AEC 출범 >

- 연혁 : 2015.12.31. 출범
- 회원국 : ASEAN 10개국*
 - *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 목적 : 투자, 인력, 서비스,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단일시장 조성
- 의의 : GDP 2조 4천억 달러, 인구 6억 3천만 규모의 단일 경제권 형성

< TPP 타결 >

- 연혁 : 2015.10.05. 타결
- 참여국 : 12개국*
 - *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칠레,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페루, 뉴질랜드
- 목적 : 참여국간 예외 없는 관세 철폐목적의 역내 무역자유화
- 의의 : 12개국의 GDP 비중은 36.8%로 다자 무역협정 중 최대 규모
관세 외 투자규제,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국유기업 이슈도 포함하는 21세기형 무역협정으로 평가

< AIIB 출범 >

- 연혁 : 2016.1.16. 출범
- 회원국 : 57개국
 - *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한민국, 인도, 이란 등
- 목적 : 아시아 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
- 의의 : WB와 ADB에 대항하여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개발금융 지원

2. 조사내용

- (조사대상) 2016년 기준, 과거 2년 및 향후 2년 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6개국*에서 생산기지의 이전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기업
 -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가 위치한 국가 및 최근의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가
 - AEC 회원국 중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국가인 싱가포르와 제조업진출 여건이 열악한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조사내용) 무역관 주재국의 생산기지 이전동향 사례 및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국가별 평가 및 대응동향
 - (기업동향) 조사대상 국가 소재 주요기업의 생산기지 이전동향
 - (국별동향) 관련국 정부의 반응 및 투자유치관련 동향

※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생산기지 이전동향과의 연계성 파악을 위해 '16년 기준으로 전후 각 2년 간 생산기지 이전을 완료 혹은 계획 중인 사례만을 대상으로 함
- (조사방법) 주재국의 언론 및 무역관의 기업 인터뷰 등

<주요 통상환경변화와 조사대상국가>

국가	AEC 출범	TPP 타결	AIIB 출범
중국	△	△	○
베트남	○	○	○
인도네시아	○	△	○
태국	○	△	○
말레이시아	○	○	○
멕시코	-	○	-

○ 회원국 / 참여국

△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

II 조사결과

1. 27개 기업의 이전 추진 사례 발굴

- 이전을 완료한 기업은 7개, 현재 이전을 추진 중인 기업은 20개
- 이전을 추진 중인 기업의 모기업 소재국은 대한민국(5개사), 일본(4개사), 중국(4개사), 대만(3개사) 순

<생산기지 이전/투자 확대 추진 기업의 모기업 소재국>

모기업 소재국	이전(계획) 기업 수	모기업 소재국	이전(계획) 기업 수
대한민국	5	일본	4
중국	4	대만	3
미국	3	중국(홍콩)	2
프랑스	1	태국	1
인도네시아	1	이스라엘	1
독일	1	프랑스	1

- 이전을 추진 중인 업종은 섬유·의류(11개사), 전자제품(4개사), 가전제품(2개사), 자동차(2개사) 순

<생산기지 이전/투자 확대 추진 업종>

업종	이전(계획) 기업 수	업종	이전(계획) 기업 수
섬유·의류	11	전자제품	4
가전제품	2	자동차	2
자동차부품	2	기계부품	1
휴대폰	1	신발	1
화장품	1	항공기	1
석유화학	1	-	-

<생산기지 이전희망 기업현황>

기업명	업종	모기업소재지	현재진출지역	이전희망지역
무인양품	섬유·의류	일본	중국	ASEAN 국가
Crystal Group	섬유·의류	홍콩	중국	ASEAN 국가
PTT	석유·화학	태국	태국	ASEAN 국가
삼성전자	가전제품	대한민국	태국	베트남
삼성전자	휴대폰	대한민국	중국	베트남
삼성디스플레이	전자제품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PT Interplex	기계부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PT Volma	신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전완료)
Yulun	섬유·의류	중국	베트남	베트남 (이전완료)
Gain Lucky	섬유·의류	중국	베트남	베트남 (이전완료)
Worldon	섬유·의류	중국	베트남	베트남 (이전완료)
Delta Galil	섬유·의류	이스라엘	베트남	베트남 (이전완료)
효성	섬유·의류	대한민국	베트남	베트남 (이전완료)
Polytex Far Eastem	섬유·의류	대만	베트남	베트남 (이전완료)
Fast Retailing	섬유·의류	일본	중국 등	베트남 / 인도네시아
宝成集團	섬유·의류	대만	중국 등	베트남 / 인도네시아
TAL Group	섬유·의류	홍콩	중국 등	베트남 / 말레이시아
Intel	전자제품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 중국
Toyota	자동차	일본	베트남	태국
Panasonic	전자제품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대한민국	중국 등	중국
Boeing	항공	미국	세계 150개국	중국
TCL Group	전자제품	중국	중국 등	인도 / 브라질
팍스콘	전자제품	대만	중국 등	인도
Goodyear	자동차부품	미국	미국	멕시코
Michelin	자동차부품	프랑스	-	멕시코
BMW	자동차	독일	-	멕시코

자료원 : KOTRA 무역관 조사 (기업 인터뷰, 지역 언론보도 등)

2. 국별 기업 유출입 동향

- 최다 기업유입 국가는 베트남, 최다 유출 국가는 중국
 - 31개 이전 희망국가 중 15개가 베트남으로 이전을 계획 중이며, 베트남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하려는 기업은 1개에 불과
 - 반면, 중국에서는 11개 기업이 다른 국가로의 이전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으로 진출하겠다는 기업은 3개사에 그침

<이전희망 주요기업의 국별 선호 동향>

국가	유출기업 수	유입기업 수	순유입기업 수
베트남	1	15	14
멕시코	0	3	3
동남아시아 국가	2	3	1
인도네시아	2	2	0
말레이시아	2	2	0
태국	3	1	-2
기타국가	6	2	-4
중국	11	3	-8
계	27	31	

* 기업 수 : 중복 진출 지역 포함

- 최다 이전희망 업종은 섬유·의류, 전자 순
 - 전체 생산기지 이전 추진 사례 31건* 중 섬유·의류 업종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 베트남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건이 9건을 차지
 - * 조사사례는 27개 기업이나 중복진출 희망지역을 포함
 - 가전제품, 전자제품, 휴대폰 제조공장의 이전계획 사례는 총 7건이며, 7건 중 4건이 베트남으로의 이전을 희망
 - 한편, 중국으로 이전하려는 업종은 항공기 제조, 전자제품, 화장품 등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소비재 분야로 조사됨

<이전희망 주요기업의 업종별 이전희망 국가>

국가 업종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 시아	말레이 시아	동남아 시아	멕시코	기타*	계
섬유·의류		9		2	1	2			14
신발		1							1
화장품	1								1
가전제품		1			1				2
전자제품	1	2						2	5
휴대폰		1							1
기계부품		1							1
석유화학						1			1
자동차			1				1		2
자동차부품							2		2
항공기	1								1
계	3	15	1	2	2	3	3	2	31

* 이전희망 국가 : 복수 진출희망 국가 포함

* 기타국가 : 브라질 / 인도

3. 주요 생산기지 이전 사유

- 27개 기업들의 이전 사유는 모두 45건으로 분석됨 (복수 사유 포함)
- 무역협정 활용을 위해 이전하는 경우가 23건으로 가장 많았음
 - 23건 중 TPP 활용을 위해 이전한다는 경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 8건이 섬유·의류업체가 차지
 - AEC 활용을 이전 사유로 밝힌 사례는 4건이었으며, 기타 무역협정을 사유로 밝힌 경우는 5건으로 EU-CEPA(베트남, 멕시코 체결), NAFTA(멕시코 체결) 등의 무역협정이 언급됨
- 既진출국가의 비즈니스 환경 때문에 이전하려는 경우는 12건
 - 12건 중, 인건비 때문이라는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섬유·의류 업종이 5건을 차지
 - 한편, 노동문제와 정부정책은 각각 2건과 1건을 차지
- 그 외 기업경영전략 차원에서 이전하려는 경우는 10건
 - 역내 최적 생산지역으로의 생산 네트워크 재편 추진 및 글로벌 통합 생산기지 육성 추진 사례 등이 5건을 차지

- 기타 환율 변동성 확대에 의한 리스크 관리, 제품생산 투트랙 전략에 따른 지역별 생산제품 특화, 시장진출을 위한 생산기지 이전 등이 총 5건으로 밝혀짐

<이전희망 주요기업의 업종별 이전사유>

사유 업종	무역협정			비즈니스 환경			경영전략
	AEC	TPP	기타협정	인건비	노동문제	정부정책	
섬유·의류		8		5		1	
신발		1	1		1		
화장품							1
가전제품	2			1			2
전자제품		2		1			4
휴대폰				1			1
기계부품		1	1	1	1		
석유화학	1						1
자동차	1	1	1				
자동차부품		1	2				
항공기							1
소계	4	14	5	9	2	1	10
계		23			12		10

주) 이전사유 복수응답 / 1개 기업이 2개 이상의 지역에 진출하는 경우 포함
 자료원 : KOTRA 무역관 조사 (기업 인터뷰, 지역 언론보도 등)

4. 국별 기업 유입 사유

- (베트남) 이전사유로 분석된 총 45건 중 베트남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밝힌 사유는 총 24건이며, 24건 중 TPP가 12건, 인건비가 6건을 차지
 - 즉, 베트남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은 TPP 활용과 인건비 절감이 주된 이전 사유인 것으로 분석됨
- (멕시코) 멕시코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밝힌 5건의 이전 사유는 모두 TPP 등 무역협정 활용인 것으로 조사됨
- (중국) 중국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이 밝힌 이전 사유는 모두 경영전략 차원으로 조사됨

<이전희망 주요기업의 국가별 주요 유입사유>

국가 사유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 시아	말레이 시아	동남아 시아	멕시코	기타*	계
AEC		1	1		1	1			4
TPP		12			1		2		15
기타협정		2					3		5
인건비		6		2	1	2			11
노동문제									0
정부정책									0
경영전략	3	3			1	1		2	10
계	3	24	1	2	4	4	5	2	45

주) 이전사유 복수응답 / 1개 기업이 2개 이상의 지역에 진출하는 경우 포함

* 기타국가 : 인도, 브라질

5. 국별 기업 유출 사유

- (중국) 다른 국가로 이전추진 사유 16건 중 인건비가 6건, TPP가 5건으로 인건비 상승과 TPP 타결이 유출에 큰 영향
- (인도네시아) 다른 국가로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이 밝힌 이전사유는 총 8건으로 TPP, 기타협정, 인건비, 노동문제가 각각 2건을 차지
- (기타국가) 기타국가에서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이전사유는 TPP가 5건, 기타 무역협정이 3건을 차지

<이전희망 주요기업의 국가별 주요 유출사유>

국가 사유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 시아	말레이 시아	동남아 시아	기타*	계
AEC		1	3					4
TPP	5			2	2	1	5	15
기타협정				2			3	5
인건비	6		1	2	1	1		11
노동문제				2				2
정부정책	1							1
경영전략	4		3		2	1	1	11
계	16	1	7	8	5	3	9	49

주) 이전사유 복수응답 / 1개 기업이 2개 이상의 지역에 진출하는 경우 포함

* 기타국가 : 미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대만

III 시사점

1. 국제 분업구조 재편

- 최근의 국제 통상환경 변화로 동남아(특히 베트남)과 중국 간 국제 분업구조에 근본적 변화 발생 중
 - 노동집약형 산업(섬유, 의류 등), 단순 조립형(가전 등) 산업의 베트남(및 동남아) 선호현상 뚜렷
 - * 동 조사 발굴 사례 31건 중 15건(48.3%)이 베트남으로의 이전을 희망
 - 첨단산업(반도체, 항공 등), 고급소비재 산업(화장품 등)은 중국을 생산기지로 선호하면서 중국이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의 생산기지로 업그레이드 중이며, 노동집약형 산업의 脫중국 현상은 확대

<국별·산업별 국제 분업구조 형성 동향>

국가 업종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	국가 업종	중국
섬유·의류·신발	저렴한 인건비 활용 및 TPP 혜택 활용위한 이전	반도체	고부가가치 장치산업은 중국 내 생산 확대
가전제품·휴대폰	저렴한 인건비 활용 및 역내 제조 계열사와 시너지 창출위한 이전	항공	일부 기종의 최종조립 공장 설립 검토
기계부품	저렴한 인건비 활용 및 TPP 혜택 활용위한 이전	화장품	기획·연구·생산 통합공장 설립

2. 무역협정이 생산기지 이전의 주요원인

- 생산기지 이전사유 중 절반 이상(51.5%)이 무역협정 활용으로 무역협정이 실제로 기업 활동에 직접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 특히 조사사례 중 TPP를 이전사유로 밝힌 건이 14건으로* TPP가 최근 통상환경 변화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확인
 - * 무역협정을 이전사유로 밝힌 23건 중 60.8%

- 원산지 규정이 생산기지 이전에 핵심 영향
 - TPP를 이전사유로 밝힌 기업들은 TPP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할 경우 참여국 시장으로 제품 수출 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요요인으로 밝힘.
- 무역협정 참여국가(시장)도 중요 요소
 - TPP와 EU-CEPA*에 모두 참여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 집중
 - * TPP : 미국, 일본 시장, EU-CEPA : EU 시장
 - NAFTA, EU-CEPA를 既체결한 멕시코도 TPP타결 이후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이전희망 사례가 나타남.
 - 베트남의 경쟁국들도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시장이 포함된 TPP, EU-CEPA, RCEP 등의 무역협정을 우선 추진하고 있음.
 - 단순한 무역협정 참여확대 보다 주요국가(시장)가 포함된 무역협정 참여가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됨을 시사

3. 국가별 생산기지 이전의 비교우위 변화 전망

- 생산기지 유치경쟁 심화에 따라 국가별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무역협정 추진 등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국별 진출 비교우위가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
 - * 제도정비, 인프라 확충, 특별경제구역 운영, 특별공단 조성 등

<AEC 주요국의 투자환경 개선 추진 현황>

국가	투자환경 개선 추진 내역
공통	· 산업별 특화공단 조성, 특별경제구역(SEZ) 조성, 투자기업 세제혜택 제공, 인프라 확충 등
베트남	· 생산 공장 유입 증가에 따른 교통 인프라 확충 · 노동집약산업 중심 구조 탈피를 위한 부품소재산업 지원 등
인도네시아	· 베트남과 생산기지 유치 경쟁 · TPP 가입 검토, EU-CEPA 협상 재개 · 임금 산정방식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 국가표준 SNI 시행 등 국내 비즈니스 환경 개선
태국	· 메콩경제권 중심으로 도약 목표 · 낮은 인건비 경쟁력 극복을 위해 교통·물류·인프라 투자에 중점
말레이시아	· 금융, 고부가가치 산업 허브로 도약 추진* * 높은 인건비와 작은 내수시장으로 생산기지로서 투자유인 낮음 · 경제변환계획(2020년 종료) 추진 및 종합석유화학단지 조성 등 자국 특화 산업 유치 노력

첨부1 국가별 동향

1 중국

□ 기업 이전동향

- 27개 기업 중 11개 기업이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 계획
 - 유출업종의 72.7%가 단순 노동집약 산업 (섬유·의류, 신발 산업)
 - 중국에서 이전하려는 기업의 희망진출 지역은 베트남이 가장 많음.*
 - * 베트남(4), 인도(2), 인도네시아(1), 말레이시아(1) 순
 - 주요 이전사유는 베트남의 TPP 활용,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

<중국에서 해외로 이전하려는 기업>

기업	업종	이전(희망)지역	이전사유
Fast Retailing	섬유의류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중국의 인건비 상승 · TPP 관세혜택
宝成集團	섬유의류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중국의 인건비 상승 · 중국의 노동집약 산업 구조조정
TAL Group	섬유의류	베트남 / 말레이시아	· 중국의 인건비 상승 · TPP 관세혜택
Yulun	섬유의류	베트남	· TPP 관세혜택
Gain Lucky	섬유의류	베트남	· TPP 관세혜택
Worldon	섬유의류	베트남	· TPP 관세혜택
무인양품	섬유의류	동남아	· 중국의 인건비 상승
Crystal Group	섬유의류	동남아	· 중국의 인건비 상승
삼성전자	휴대폰	베트남	· 중국의 인건비 상승 · 베트남 진출 제조계열사와 시너지 효과 · 중국 환율 변동성 확대 리스크 관리 · 투트랙 전략
TCL Group	전자제품	인도 / 브라질	· 중국의 인건비 상승 · 해당지역 시장 진출기반 마련
팍스콘	전자제품	인도	· 인도 내수시장 공략

자료원 : KOTRA 무역관 조사 (기업 인터뷰, 지역 언론보도 등)

- 27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중국으로 이전 및 투자확장 계획
 - 유입업종은 항공기, 전기·전자, 화장품 복합연구생산 단지 등으로 유출업종 대비 고도화 된 산업임.*
 - 인건비 상승과 산업고도화 정책이 노동집약산업의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은 중국 잔류 및 투자 확대
- * (삼성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제품 중국 생산 확대 계획

<중국으로 이전 혹은 투자를 확장하려는 기업>

기업	업종	既 진출지역	이전사유
Intel	전기전자	말레이시아	· 중국 내륙의 저렴한 인건비 · 중국 시장 공략
Boeing	항공	세계150개국	· 중국 내 대형 밸류체인 형성 · 中-美 정치적 협상 수단 등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중국, 동남아	· 심층적 현지화를 위한 기획·연구·생산 통합공장 설립 · 수요증가에 따른 공장 확충

□ 통상환경변화에 대한 중국의 평가 및 대응

통상이슈	평가 및 대응
AEC 출범	· 회원국 간 경제격차 등으로 원활한 운영에 부정적 · AIIB 출범, 일대일로 전략과 시너지 효과 기대
TPP 타결	· 섬유·의류업계 타격 예상 · FTAAP, RCEP, 일대일로 전략으로 견제
AIIB 출범	· 통상환경 변화가 ASEAN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 수요 증가로 이어져 AIIB의 안정적 출범에 긍정적 영향

- (AEC) AIIB 출범 및 일대일로 전략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기대
 - 회원국 간 문화, 경제격차, 통합제도 미흡 등을 고려할 때 AEC 역내 원활한 협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그러나 AEC 회원국이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AIIB 재원을 활용하면서 AIIB의 안정적 출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AEC 출범에 따른 역내 교류 활성화는 일대일로 전략에도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해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이익이 될 것으로 평가

- **(TPP)** 발효 시 섬유·의류업계 타격 불가피
 - 중국 의류업계 최대 수요처인 미국과 일본의 생산기지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어 관련업계 타격 예상
 - 중국은 노동집약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전반적인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FTAAP, RCEP 등 무역협정과 일대일로전략 등으로 TPP에 대응
- **(AIIB)** ASEAN 국가의 인프라 개발 수요증가 및 일대일로 전략 추진과 맞물려 관련국과의 교역·투자 강화 전망
 - AEC 회원국의 인프라 건설 수요 지속적 증가세
 - AIIB 주도국으로서 아-태지역 전반에 대한 경제영향력 지속될 예정

< FTAAP >

- 연혁 : 2006년 베트남 APEC 정상회의 때 제시
- 회원국 : APEC 소속 21개국*
 - *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 목적 :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 지대 건설 목표로 TPP에 대항하는 경제공동체
- 현황 : 타당성 연구 진행 중

< RCEP >

- 연혁 : 2012.11.20. 협상개시 선언
- 회원국 : ASEAN 10개국 + 대한민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 목적 : 16개국 역내 무역자유화
- 의의 : GDP 19조 7,460억 달러, 인구 34억 명의 거대시장 출범

< 一帶一路 전략 >

- 연혁 :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 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 순방 시 제시
- 목적 : 중앙아-유럽, 동남아-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구축*
 - * 물류 허브 건설, 에너지 기반시설 연결, 참여국 간 금융 일체화 추진 등
 - * 2049년까지 완성 목표, 1조 400억 위안 규모 인프라 건설
- 의의 : 중국을 중심으로 60여 개국을 포함하는 거대 경제권 구성

□ 중국의 투자유치동향

○ 공단조성

- 제조업 업그레이드 정책 일환으로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지정
- 하이테크 산업 우대정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 특별경제구역 조성

- 4대 자유 무역구(FTZ : Free Trade Zone)* 운영

* 상하이, 텐진, 광둥, 푸젠

- 자유 무역구 내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외국인 투자 및 경영 허용

○ 투자기업세제혜택 제공

- 경제기술개발구와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입주기업 세제혜택 제공

* 우한 동후(東湖) 하이테크산업개발구는 '13년 세제감면액이 6억5천만 위안에 육박

○ 주요 인프라 건설계획

- 항구,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주변국과의 송유관, 가스관, 전력 등 에너지 기반시설 건설을 통한 에너지 협력 추진 예정

□ 시사점

○ 기업유출현상은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새로운 국제 분업구조 형성과정

- 중국의 인건비 상승, 경기둔화 등이 TPP 타결과 맞물리면서 주요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을 고려할 때 이는 脫중국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 분업구조의 형성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중국은 산업고도화 정책에 따라 고부가가치산업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업 또한 연구, 개발, 기획 및 첨단산업은 對中 투자를 확장하고 있어 첨단산업 경쟁력은 오히려 강화될 전망

- 통상환경변화에 따른 중국의 역내 경제 영향력 약화되지 않을 것
 - TPP 참여국 및 AEC 회원국이 여전히 중국과 깊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주도의 AIIB가 ASEAN 국가 인프라 개발의 주요재원이 되고 있어 중국의 영향력은 지속될 전망
 - RCEP, 일대일로 추진 등으로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2 베트남

□ 기업 이전동향

- 베트남에서 해외로 생산기지 이전을 추진 중인 기업은 1개
 - AEC 출범에 따른 역내 교역 무관세화에 따라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서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비용보다 완성차를 수입하는 비용이 더 저렴해짐에 따라 Toyota 생산 공장 태국으로 이전
- 27개 기업 중 15개 기업이 베트남으로 생산기지 이전 계획
 - 진출희망 업종의 66.7%는 단순 노동집약산업 (섬유·의류, 신발 산업)
 - 베트남으로 진출희망 기업의 既진출지역은 중국이 가장 많음.*
 - * 중국(4), 인도네시아(2), 말레이시아(2), 태국(1) 순
 - 진출희망 사유는 TPP 등 베트남이 체결한 무역협정 혜택의 활용과 베트남의 저렴한 인건비 활용 등

<베트남으로 이전 혹은 투자를 확장하려는 기업>

기업	업종	既진출지역	이전사유
Yulun	섬유의류	중국	· TPP 관세혜택
Gain Lucky	섬유의류	중국	· TPP 관세혜택
Worldon	섬유의류	중국	· TPP 관세혜택
Delta Galil	섬유의류	이스라엘	· TPP 관세혜택
효성	섬유의류	한국	· TPP 관세혜택
Polytex Far Eastern	섬유의류	대만	· TPP 관세혜택
Fast Retailing	섬유의류	중국 등	· 중국의 인건비 상승 · TPP 관세혜택
TAL Group	섬유의류	중국 / 동남아	· 중국의 인건비 상승 · TPP 관세혜택
宝成集團	섬유의류	중국 등	· 중국의 인건비 상승 · 중국의 노동집약 산업 구조조정
PT Volma	신발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인건비 상승 및 노동문제 · TPP 및 EU-CEPA 관세혜택
삼성전자	가전제품	태국	· 베트남의 저렴한 인건비 · AEC 관세혜택 및 물류비 절감 · 생산거점 효율화 전략

삼성전자	휴대 폰	중국 등	· 중국의 인건비 상승 · 제품별 투트랙 생산 경영전략
삼성 디스플레이	전자제품	말레이시아	· 베트남의 저렴한 인건비 · TPP 관세혜택
인텔	전자제품	말레이시아	· TPP 관세혜택
PT Interplex	기계부품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인건비 상승 및 노동문제 · TPP 및 EU-CEPA 관세혜택

자료원 : KOTRA 무역관 조사 (기업 인터뷰, 지역 언론보도 등)

□ 통상환경변화에 대한 베트남의 평가 및 대응

통상이슈	평가 및 대응
AEC 출범	· 단시간 내 영향력 없을 것 · 베트남 내 AEC에 대한 인식은 낮음.
TPP 타결	· 외국기업투자유치 증가, 주요시장 확대 등 기회요인 · 낮은 자국기업경쟁력, 수입품 증가 등은 위협요인
AIIB 출범	· 인프라 사업 주요 자원 공급 기대 · 중국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음.

- (AEC) 단시간 내 영향력을 미치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 회원국 간 문화 경제적 격차와 제도 표준화 미비가 걸림돌
 - 베트남 기업의 AEC에 대한 인식은 낮음.
- (TPP) 베트남 경제 발전에 핵심역할 할 것으로 기대
 - 외국기업유치, 수출촉진, 시장 확대, 부품소재산업 발전 촉진으로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
 - 관세절감으로 인한 수입품 증가, 낮은 자국기업 경쟁력, 안전기준 강화로 인한 농산물 수출 타격 등은 문제점으로 부각
- (AIIB) 인프라 사업 재원확보로 투자환경개선에 기여할 것
 - 인프라 사업 수요 증가세와 맞물려 주요재원 확보 가능
 - WB, ADB, JICA 등 기존 원조사업지원기관 및 기금의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중소형 프로젝트 추진할 수 있는 기회
 - 중국 영향력 확장 및 중국기업 진출 확대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 베트남의 투자유치동향

○ 공단조성

- 섬유·의류공장 유입증가 및 추가유치를 위한 섬유산업공단 조성*

* 하이퐁 섬유특화단지, Rang Dong 섬유공단 조성 계획 등

○ 특별경제구역 조성

- Van Don (북부), Bac Van Phong (중부), Phu Quoc (남부)

<베트남 경제특구 투자인센티브>

프로젝트 유형	법인 소득세 (CIT)	
	세율	면제(감면) 기한
일반 제조업 투자	제조업체 영업 개시일 부터 15년간 10% 적용	· 이익발생 후 4년 간 면제 · 이후 9년 간 50%감세
하이테크 프로젝트 투자	최대 30년간 10% 적용	· 이익발생 후 4년 간 면제 · 이후 9년 간 50%감세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프로젝트 전체 기한동안 10% 적용	· 이익발생 후 4년 간 면제 · 이후 9년 간 50%감세

* 기타 추가적으로 지역 내 노동자 개인소득세 50% 감면

○ 부품소재산업 지원 정책

- (혜택) 연구개발, 기술이전, 인력개발, 시장개발지원, 투자인센티브 제공

<베트남 부품소재산업 투자인센티브>

구분	내용
공통 인센티브	· 법인세 15년 간 10% 적용 · 고정자산용 설비 수입세 면제 · 정부, 투자 자본금 대출 지원 · 부가세 신고 기한 자율화 · 오페수 처리 발생비용 정부 대출
중소기업 해당 기업 특별 지원	· 투자금 최대 80% 대출(고정자산 15%만 담보) · 토지세 감면 및 면제

○ 주요 인프라 건설계획

- 북부 주요지역 및 하이퐁 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추진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계획>

구간	공사규모	투자금액 (백만 달러)
Ninh Binh - Thanh Hoa	121km, 6차선	1,535
Thanh Hoa - Ha Tinh	98km, 4-6차선	1,214
La Son (Hue) - Da Nang	79km, 4-6차선	814
Da Nang - Quang Ngai	125km, 4차선	1,301
Dau Giay - Phan Thiet	100km, 4차선	864
Ben Luc - Long Thanh	48km, 4차선	1,456
Trung Luong - My Thuan	54km, 4차선	930
My Thuan - Can Tho	32km, 4차선	698

□ 시사점

- 제조업 집중과 고부가가치산업 유치정책으로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
 - 섬유·의류업종 중심으로 전자, 기계업종 등 제조업 유입 가속화
 - TPP, EU-CEPA 등 대외적 요인과 저렴한 인건비, 투자환경 개선 노력 등 대내적 요인의 결합으로 생산기지 유치 시너지 효과 발생
 - 단순 노동집약형 산업구조 고착화 방지와 점진적 산업고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첨단산업 및 부품소재산업 유치에도 힘쓰고 있어 향후 관련 업종 진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 AIIB 출범이 베트남의 적극적 인프라 구축 추진과 맞물려 투자환경개선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글로벌 생산기지로의 도약에 탄력을 받을 것
- AEC의 조기 안정화에 대한 기여도는 높지 않을 것
 - 베트남이 생산기지 유치의 최대수혜국으로 부상하면서 AEC 회원국 간 기업유치를 위한 경쟁심화 예상
 - 베트남은 AEC 보다 TPP에 집중하고 있어 AEC 역내 협력강화에는 소극적임.

3 인도네시아

□ 기업 이전동향

- 27개 기업 중 2개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 계획
 - 인도네시아에서 이전하려는 기업의 희망진출지역은 베트남
 - 주요 이전사유는 베트남의 무역협정(TPP, EU-CEPA) 활용 및 인도네시아의 급격한 임금인상과 노동문제

<인도네시아에서 해외로 이전하려는 기업>

기업	업종	이전(희망)지역	이전사유
PT Interplex	신발	베트남	· TPP, EU-CEPA 관세혜택 · 인도네시아의 인건비 상승 및 노동문제
PT Volma	기계부품	베트남	· TPP, EU-CEPA 관세혜택 · 인도네시아의 인건비 상승 및 노동문제

자료원 : KOTRA 무역관 조사 (기업 인터뷰, 지역 언론보도 등)

- 27개 기업 중 2개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생산기지 이전 계획
 - 진출희망 업종은 섬유·의류업
 - 인도네시아로 진출희망 기업의 既진출지역은 중국
 - 진출희망 사유는 중국의 인건비 급등

* 조사된 사례의 기업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이전 지역으로 고려 중

<인도네시아로 이전 혹은 투자를 확장하려는 기업>

기업	업종	既진출지역	이전사유
Fast Retailing	섬유·의류	중국 등	· 중국의 인건비 상승
宝成集團	섬유·의류	중국 등	· 중국의 인건비 상승

자료원 : KOTRA 무역관 조사 (기업 인터뷰, 지역 언론보도 등)

□ 통상환경변화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평가 및 대응

통상이슈	평가 및 대응
AEC 출범	· 단기간 내 역내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나 회원국 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될 것 · 투자환경 경쟁력 강화를 통해 AEC 활용 제고 노력
TPP 타결	· 베트남 대비 생산기지 유치 경쟁력 저하 요인 · TPP 참여 검토 중
AIIB 출범	· 인프라 개발 자원확보로 투자유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 기대 · 6개 프로젝트 20억 달러규모 자원 신청

- (AEC) 글로벌 생산기지 유치를 둘러싼 회원국 간 경쟁심화 예상
 -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교통인프라, 낮은 물류경쟁력, 높은 임금상승률이 회원국 간 투자유치경쟁 시 마이너스 요소로 분석
 - 국내 투자환경 경쟁력 강화를 통한 AEC출범 수혜 극대화 노력*
 - * 대통령령 No.6 2014 : 산업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육성, 국가표준(SNI)시행 등
- (TPP) 투자유치 확대 및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참여 검토
 - 섬유·의류업종의 베트남으로의 지속적 유출이 예상되어 '17년 말*까지 TPP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베트남과의 생산기지 유치 경쟁이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
 - * '17년 말 TPP 발효 예상
 - TPP 참여 검토 중*이나 EU와의 CEPA 협상 재개에 중점
 - * '15.10.26, 조코위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TPP 가입의사 천명
- (AIIB) 인프라 개발사업 자원확보로 투자유치 경쟁력 제고 기대
 - AIIB 재원을 활용한 인프라 개발로 글로벌 생산기지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적극적으로 추진 중*
 - * '16년-'17년 간 총 20억 달러 규모 6개 프로젝트 자원 既신청

□ 인도네시아의 투자유치동향

○ 공단조성

- 2015년 국가산업개발 마스터 플랜에 의거 자바 섬 외 지역에 14개 전략 산업단지/공단 개발 추진 중

<인도네시아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산업 단지명	지역	주요유치산업
Teluk Bituni	West Papua	비료/석유화학
Buli	North Maluku	
Bitung	North Sulawesi	농업/물류
Konawe	Southeast Sulawesi	
Morowali	Central Sulawesi	
Palu	Central Sulawesi	농업
Bantaeng	South Sulawesi	
Ketapang	West Kalimantan	알루미나
Mandor	West Kalimantan	고무기반산업
Batulicin	South Kalimantan	제철
Jorong	South Kalimantan	제철/농업
Tanggamus	Lampung	해양산업
Kuala Tanjung	North Sumatera	알루미나
Sei Mangkei	North Sumatera	석유화학

○ 특별경제구역 조성

- 8개 특별경제구역 개발/운영 중, 17개 구역 추가 지정 예정

<인도네시아가 운영/개발 중인 특별경제구역>

명칭	지역	주요유치산업	비고
Tanjung Lesung	Banten	관광	개발 중
Sei Mangkeei	North Sumatera	고무/팜오일	운영 중
Palu	Central Sulawesi	제조업/농업/물류	개발 중
Bitung	North Sulawesi	어업/물류	개발 중
Mandalika	West Nusa Tenggara	관광	개발 중
Morotai	North Maluku	관광/어업	개발 중
Tanjung Api Api	South Sumatra	고무/석유화학	개발 중
MBTK	East Kalimantan	팜오일/물류	운영 중

○ 주요 인프라 건설계획

- 30대 우선 순위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중, 총 819조 루피아 투입하여 2019년까지 완료를 목표

<인도네시아 30대 우선순위 인프라 프로젝트>

연번	프로젝트명
1	Balikpapan Toll Road
2	Manado-Bitung Toll Road
3	Panimbang-Serang Toll Road
4	Trans Sumatra Toll Road
5	SHIA Express Train
6	MRT Jakarta - South-North Route
7	Makassar-Parepare Railway
8	International Kuala Tanjung Port
9	International Bitung NCICD Port
10	Karang Kates 4 & 5 (2x50MW) Hydro Power Plant
11	Kesamben(37MW) Hydro Power Plant
12	Ledoyo(10MW) Hydro Power Plant
13	Inland Waterways/Cikarang-Bekasi-Laut(CBL)
14	Light Rail Transit(LRT) in South Sumatera
15	Integrated Light Rail Transit(LRT) in Jakarta, Bogor, Depok, Bekasi
16	National Capital Integrated Coastal Development - Phase A
17	Jakarta Sewerage System
18	SPAM - West Semarang
19	High Voltage Direct Current (HVDC)
20	Sumatera Transmission
21	Ceneta-West Java Transmission Line 500KV
22	Central Java Power Plant (CJPP/PLTU Batang)
23	Indramayu Coal Fired Power Plant
24	Sumatera Selatan Mine Mouth Power Plant 9,9
25	Bontang Oil Refinery
26	Oil Refinery Revitalization (Balikpapan, Cilacap, Balongan, Dumai, Plaju)
27	Seaport in Northern Part of West Java
28	Tuban Oil Refinery
29	Palapa Ring Broadband
30	East Kalimantan Railway

□ 시사점

-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 필요
 - 베트남 대비 낮은 무역협정활용도와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투자유인이 적어 생산기지 유치경쟁력이 낮음.
 - TPP 발효 시 베트남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TPP 참여검토 및 EU-CEPA 협상재개, RCEP 참여 등 통상환경 개선 노력 중
 - 인도네시아에서 공장운영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잦은 노동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사회적 노력이 요구됨.
- 국내제도 정비 및 무역협정 활용 시 여전히 경쟁력 있음.
 - AESAN 전체 GDP의 40%를 차지하는 경제규모, 역내 최대 내수 시장 보유는 여전히 인도네시아만의 경쟁력
 - 중국의 급격한 임금상승을 사유로 인도네시아로 이전을 추진 중인 사례를 감안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인건비 경쟁력도 낮지 않음.
 - 적극적인 인프라 개선, 투자유치정책 시행, 국내제도 정비, 대외 무역협정 추진 등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잠재력 상존

4 태국

□ 기업 이전동향

- 27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태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 및 투자확대 추진
 - 가전제품 생산기업이 이전을 추진 중이며 주요 이전사유는 AEC 출범에 따른 경영전략 변화와 인건비 격차
 - 태국의 석유화학 기업 PTT는 AEC 출범을 계기로 ASEAN 지역 최대 브랜드를 목표로 역내 투자확대 추진 중

<태국에서 해외로 이전 혹은 투자확장하려는 기업>

기업	업종	이전(희망)지역	이전사유
삼성전자	가전제품	베트남	· AEC출범에 따른 역내 관세철폐, 물류비 절감 · 베트남의 저렴한 인건비 · 호치민 소비자 복합단지 조성
Panasonic	가전제품	말레이시아	· AEC출범에 따른 역내 관세철폐, 물류비 절감 · 파나소닉 투트랙 생산전략
PTT	석유·화학	ASEAN 전 국가	· TPP, EU-CEPA 관세혜택 · 인도네시아의 인건비 상승 및 노동문제

자료원 : KOTRA 무역관 조사 (기업 인터뷰, 지역 언론보도 등)

- 태국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추진 중인 기업은 1개
 - AEC 출범에 따른 역내 교역 무관세화에 따라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서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비용보다 완성차를 수입하는 비용이 더 저렴해짐에 따라 Toyota 생산 공장 태국으로 이전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태국의 평가 및 대응

통상이슈	평가 및 대응
AEC 출범	· 메콩 경제권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 · 역내 교역 증가에 따른 교통·물류 활성화 기대
TPP 타결	· AEC 회원국 중 TPP 참여국과 미참여국 간 갈등 우려
AIIB 출범	·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의 주요 자원

- (AEC) 메콩 경제권 중심으로 도약을 위한 디딤돌
 - 높은 인건비로 노동집약형 산업 생산기지 유치 경쟁력은 낮음.*
 - * 태국의 최저임금은 일 300바트(8.6 달러)이나 주변국 최저 임금은 태국의 절반 수준으로 단순 노동집약 산업 유치는 어려움.
 - 주변국 대비 산업 인프라가 우수하여 역내 교역이 활성화 될 경우, 메콩 경제권에서의 산업·물류 중심지로 위상이 공고해질 것.
 - ASEAN 고속도로망 연장, 싱가포르-쿤밍 간 고속도로 건설, 해양운송 시설 개선 등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강화 추진 중
- (TPP) AEC 역내 TPP 참여국과 미참여국 간의 갈등 우려
 - 회원국 간 경제격차가 AEC의 조기 안정화에 걸림돌로 제기되는 가운데 TPP 참여국으로의 투자 쏠림 현상이 예상되어 AEC의 원활한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 (AIIB) 역내 교통·물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
 -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사업에 AIIB 재원 활용 예정

□ 태국의 투자유치동향

- 공단조성
 - '16년, 송클라 지역에 70개 공장 입주 가능한 고무산업 공단 조성*
 - * 5년간 총 투자금액 2억 2,824만 달러 예정
- 특별경제구역 조성
 - 국경 및 국경 인접 10개 지역*에 특별경제구역 조성 계획
 - * 메콩경제권 및 AEC 역내 교통 물류 중심지 추진의 일환
 - * 딱, 사게우, 뜨랏, 묵다한, 송클라, 농카이, 치앙라이, 칸차나부리, 나콘파놈, 나라티왓

Special Economic Zones 10 Provinces
(23 districts; 90 sub-districts)

Phase 1	Phase 2
Tak	Nong Khai
Sa Kaew	Chiang Rai
Trat	Kanchanaburi
Mukdahan	Nakhon Phanom
Songkhla	Narathiwat



○ 투자기업세제혜택 제공

- 2015년부터 태국정부는 Activity-based Incentives, Merit-based Incentives, Area-based Incentive 제도* 실시

* 해당 인센티브 군 사업 수행 시 상응하는 세제·비세제 혜택 수혜 가능

○ 주요 인프라 건설계획

- '15년~'22년 8개년 인프라 개발계획'에 941억 4900만 달러 투자 예정

<태국 8개년 인프라 개발계획 주요내용>

구분	내용
교통·물류	램차방 항구 확장
	U-Tapao 공항 확장
	철도 복선화
	고속도로 확장
	방콕 전동차 노선 확장
디지털 인프라	인터넷 속도 개선
	스마트 시티 개발
	디지털 이코노미 클러스터

□ 시사점

- 산업 인프라와 브랜드 경쟁력 활용하여 메콩경제권 중심으로 도약
 - 주변국 대비 높은 인건비로 노동집약형 산업 유치 경쟁력은 낮으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교통·물류 중심지로 부상*

* 아세안고속도로망, 싱가포르-쿤밍 고속도로 건설

- 발전된 산업 인프라로 노동집약형 제조업 외 기타 제조업 분야 경쟁력은 주변국 대비 우수함.
- 산업 경쟁력 및 브랜드 경쟁력이 AEC 회원국 대비 우수하여 자국 브랜드의 역내 진출을 추진하는 등 해외기업유치 뿐만 아니라 자국기업의 역내 진출 기회로 활용
- 교통 인프라 건설 사업 중심지로 부상
 - AIIB 출범에 따른 프로젝트 재원확보와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 및 확장 계획에 따른 사업 수요 증가 예상

5 말레이시아

□ 기업 이전동향

- 27개 기업 중 2개 기업이 말레이시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추진
 - 이전추진 기업은 모두 전자제품 제조업체이며 이중 Intel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내륙과 베트남, 2개 지역으로 이전 검토 중

<말레이시아에서 해외로 이전 혹은 투자확장하려는 기업>

기업	업종	이전(희망)지역	이전사유
삼성 디스플레이	전자제품	베트남	· 베트남의 저렴한 인건비
Intel	전자제품	베트남 / 중국	· TPP 관세혜택 활용 · 베트남 및 중국내륙의 저렴한 인건비

- 27개 기업 중 2개 기업이 해외에서 말레이시아로 이전 추진
 - Panasonic의 경우 AEC 출범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제품 제조 후 태국으로 수입하는 데 관세가 없어 태국은 대형가전제품 중심, 말레이시아는 전기기기 제조 중심으로 생산하는 투트랙 전략의 일환

<말레이시아로 이전 혹은 투자를 확장하려는 기업>

기업	업종	既 진출지역	이전사유
Panasonic	가전제품	태국	· AEC 출범에 따른 물류비 절감 · 제품별 투트랙 생산전략
TAL Group	섬유·의류	중국 / 동남아	· TPP 관세혜택 활용 · 중국의 인건비 급등

□ 통상환경변화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평가 및 대응

통상이슈	평가 및 대응
AEC 출범	· 인건비 경쟁력이 낮아 생산기지 유입 요인은 낮음. · 역내 금융·고부가가치 산업 허브로 도약의 기회
TPP 타결	· 신규 FTA 시장 확보 효과 · 전기·전자, 고무, 목재, 자동차 부품 산업 수출 증가 기대
AIIB 출범	· 역내 교류 활성화 및 투자환경 개선에 긍정적 역할 할 것 · 출범 참여국이나 특별한 대응은 없음.

- **(AEC)** 역내 금융, 고부가가치산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
 - 높은 인건비와 작은 내수시장으로 생산기지로서 투자유인은 적음.
 - 2.5조 달러 규모의 거대시장 출범을 기회로 주변국 대비 우위가 있는 금융 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 추진
- **(TPP)** 신규 FTA시장 확보 효과로 수출 및 투자 증가할 전망
 -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와의 신규 FTA 체결 효과
 - 참여국 대비 전기·전자, 화학, 팜오일, 고무, 목재, 섬유, 자동차 부품 생산 및 수출에 우위가 있을 것으로 기대
- **(AIIB)** 향후 국책사업 추진 시 잠재적 활용재원으로 인식
 - 참여국 간 교류 활성화 및 투자환경 개선에 긍정적 역할 기대
 - AIIB 출범 참여국이나 특별한 대응은 없음.

□ 말레이시아의 투자유치동향

- 공단조성
 - TPP 참여국 내 우위가 있는 산업 (플라스틱, 금속,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및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위한 공단 조성 추진
 - 종합석유화학 단지 조성을 통한 동남아 석유/가스 핵심지역 도약 추진

<말레이시아가 추진 중인 공단>

명칭	지역	주요유치산업
Malaysia-China Kuantan Industrial Park (MCKIP) * 중국기업 유치 목적	Pahang주 Kuantan시	플라스틱, 금속,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The Kedah Science & Technology Park (KSTP)	Kedah	첨단산업
Pengerang 종합석유화학단지	Pengerang	석유/가스/해양플랜트

○ 특별경제구역 조성

-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5개 특별경제구역* 개발 추진 중

* 동해안경제지역개발구역(ECER), 북부경제지역개발구역(NCER), 이스칸다르개발구역(ISKANDAR), 사라왁 신재생개발구역(SCORE), 사바개발구역

○ 투자기업세제혜택 제공

-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청 (MIDA) 심사를 거쳐 '개척자지위(Pioneer Status)'를 부여하고 세금인센티브/공제혜택 제공*

* 5년 이내 자본지출에 60%~100%까지 소득세 면제

<개척자 지위(Pioneer Status) 취득을 위한 조건>

- . IT부문에 투자하면서 MSC(멀티미디어산업단지)에 입주해 MSC 지위 확보
- . 7% 이상의 연구인력 및 1% 이상의 R&D 예산을 가진 하이테크 기업
- . 저개발 지역(동말레이시아 및 북부/동부 말레이반도주) 투자진출 제조기업
- . 전략프로젝트/산업연계발전 관련 투자진출 기업
- . 주요 타겟 산업 : 농업, 특화기계장비, 중장비, 자동차부품, 팜오일 바이오매스, 식품가공, 말레이시아 자원 활용, 냉장유통, 저개발지 호텔/관광 부문 등

○ 주요 인프라 건설계획

- Pengerang 지역에 총 200억 달러 투자해 종합석유화학단지 조성 중

□ 시사점

○ TPP와 AEC 동시 참여로 수출 및 투자 증가 전망

- 높은 인건비와 작은 내수시장이 생산기지 유입 저해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TPP 참여국 내에서 말레이시아가 경쟁우위가 있는 산업*에 대한 공단조성 추진 등 생산기지 유치 노력 지속

* 플라스틱, 금속,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등

- 주변국 대비 우위가 있는 금융 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중점 육성을 통해 해외기업투자 유인제고*

* 경제변환계획(ETP) 추진 및 Pengerang 종합석유화학단지 조성 추진

- TPP와 AEC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투자 유인으로 꼽히며, 베트남과 산업 우위가 달라 경쟁력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도 TPP와 AEC에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섬유·의류 업종에 경쟁우위가 있으나 말레이시아는 플라스틱, 금속, 전기전자 업종에 우위가 있음.

6 멕시코

□ 기업 이전동향

- 멕시코에서 해외로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은 확인되지 않음.
 - NAFTA 출범 이후 멕시코는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주요 생산거점으로 인건비, 산업인프라, 시장 접근성 등에서 주변국 대비 우위에 있어 멕시코 진출 기업의 유출 현상은 포착되지 않음.
- 27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해외에서 말레이시아로 이전 추진
 - 자동차 및 타이어 생산업체가 멕시코로 공장 이전 추진
 - 주요 이전사유는 NAFTA, TPP, EU-FTA 활용과 저렴한 인건비

<멕시코로 이전 혹은 투자를 확장하려는 기업>

기업	업종	既진출지역	이전사유
Goodyear	타이어	미국, 중국, 브라질 등	· NAFTA, EU-FTA 등 무역협정 활용
Michelin	타이어	중국, 인도, 미국, 멕시코 등	· NAFTA, EU-FTA 등 무역협정 활용 · TPP 발효 시 일본 시장 진출 용이
BMW	자동차	독일, 영국, 미국, 중국 등	· NAFTA, EU-FTA 등 무역협정 활용 · TPP 발효 시 일본 시장 진출 용이

□ 통상환경변화에 대한 멕시코의 평가 및 대응

통상이슈	평가 및 대응
AEC 출범	· 특별한 평가 및 대응 없음.
TPP 타결	· 경제효과 1,500억 달러 달할 것으로 전망 · 일본과 함께 TPP 최대 수혜국 될 것
AIIB 출범	· 특별한 평가 및 대응 없음.
Pacific Alliance	· 관광산업 성장 및 역내교역 증가 기대

- (AEC) 멕시코 경제와 큰 연관성 없어 특별한 평가 및 대응 없음.
- (TPP) 일본과 함께 TPP 최대 수혜국이 될 전망

- 1,500억 달러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역내 주요생산 기지로서 일본의 자본과 결합하여 최대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
- 회원국인 베트남 역시 주요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으나 멕시코와 주력산업이 달라 상호 생산기지 이동 및 업종 간 경쟁은 없을 것으로 전망
- (AIIB) 멕시코와 직·간접적 영향 없어 특별한 평가 및 대응 없음.
- (Pacific Alliance) TPP와 연계하여 아태지역 협력강화 모색
 - 회원국 간 비자 면제로 관광산업 성장 및 역내교역 증가 전망되나 역내/역외 생산기지 이동에는 특별한 영향 없음.
 - TPP 출범과 맞물려 아시아지역 태평양 연안 국가와의 협력 모색

<Pacific Alliance>

- 연혁 : 2012.6월 결성
- 회원국 :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 목적 :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아태지역 국가 협력 확대
- 의의 : GDP 2조원(ASEAN 규모), 인구 2.1억 명으로 세계 9위 경제규모
- 현황 : '13.7월 말 상품교역의 91.8%의 즉각 무관세 합의
TPP와 연계를 통한 아태지역 협력강화 추진

□ 멕시코의 투자유치동향

○ 공단조성

<멕시코가 운영 중인 공단>

명칭	지역	비고
Parque Tecnologico	Queretaro주 Marques시	· 고속도로 및 국제공항 이용 편의 · 주요입주기업 - Aceros 2000, Alestra, NIKE
Interpuerto Monterrey	Nuevo Leon주 San Pedro	· 주요입주기업 - Mondelez, Tubacero, MCNS (SKC와 Mitsui chemical 합작회사), 현대모비스

Centro de Facilidades al Comercio Internacional	Nuevo Leon주 Piedras negras시	· 주요입주기업 - Frialsa, Dicex, SR Asesores 등
Logistik Industrial Park	San Luis Potosi시	· 멕시코 최대 공단 · 주요입주기업 - GM, Continental, Hyundai Dymos, Penske, Linc, Ryder, CAT, Perfiletto, L'Oreal, BD 등
WTC 공단	San Luis Potosi시	· 멕시코 주요 항구와 연결이 잘 되어 있어 미국, 캐나다 수출에 유리 · 멕시코 유일의 자유무역구역으로 통관 및 검사절차 완화 혜택 제공 · 급여세, 주정부세, 토지세 등 감면 · Toyota, Faurecia, valeo, Motomex 등

○ 특별경제구역 조성

- '15.9.29 남부지방 낙수효과를 위해 4개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

* Lázaro Cárdenas, Puerto Chiapas, Coatzacoalcos, Salina Cruz 지방

- '16년 내 구체적 지원방안* 수립 예정

* 관세할인율, 면세품목지정, 직원교육지원, 치안안정, 기업협력, 기술개발, 재정지원 등

□ 시사점

○ TPP 타결을 계기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더욱 증가할 것

- 멕시코와 일본이 TPP 최대 수혜국으로 꼽히는 가운데 일본의 자금과 멕시코의 노동력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기대

- TPP 타결로 아시아 시장 진출 노리는 기업 유입 증가할 전망*

* 멕시코로 이전을 추진 중인 기업은 NAFTA와 EU-FTA 관세혜택 이외에도 TPP 발효 이후 아시아 시장 진출 시 이점을 주요이전사유로 꼽아 북미, 유럽기업의 對아시아 진출기지로의 가능성 대두

- TPP에 참여하고 있는 남미국가(멕시코, 페루, 칠레) 간 결속확대를 통한 투자유치 확대 모색

- AEC 출범은 큰 영향 없음.
 - TPP 참여국 중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AEC 회원국이나 멕시코와 주력 유치산업이 달라 상호 생산기지 이전은 적을 것으로 전망 됨.
 - 태평양 연합 차원에서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나 TPP 발효 이후 교역 추이를 살펴야 할 것

첨부2 | 조사국가에서 포착된 주요기업 이동 동향 사례

1 | 중국에서 포착된 기업 이전 동향

1-1 해외 → 중국 이전 및 공장 확장 사례

[사례 1] 아모레 퍼시픽 상하이 생산 공장 신축

업체명	아모레 퍼시픽	모기업소재지	한국
업종	화장품 제조 및 판매	현지주력생산품	자체 브랜드 화장품
현재진출지역	중국, 동남아 등	현재투자규모	-
현지매출규모	6,434억 원	현지고용규모	-
현지진출연혁	○ 1992년 중국 시장 진출, 2000년 아모레 퍼시픽 중국법인 설립 ○ 2014년 상해 아모레 생산단지 건설, 총 투자액 7억 5천만 위안		
공장이전 계획지역	중국 상하이	이전규모	1,300억 원 (추가 100~150억 원)
이전사유	○ 중국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연구 역량 강화 - 심층적인 현지화와 안정적인 상품 조달을 위하여 중국 상해에 기획·연구·생산 통합 공장 설립 ○ 구공장의 생산역량 부족 (생산량 및 연면적을 각각 10배 확대)		

[사례 2] Boeing 중국 생산 공장 설립 추진

업체명	The Boeing Company	모기업소재지	미국
업종	항공기 제조업	현지주력생산품	항공기
현재진출지역	전 세계 150개국	현재투자규모	-
현지매출규모	380억 달러 이상	현지고용규모	-
현지진출연혁	○ 2011년 9월, 상해비행기제조유한공사와 737 수평안정날개 제조 계약체결 ○ 2012년 11월, 중국항공공업-보잉 제조혁신센터설립, 부품 납품 개시		
공장이전 계획지역	중국 본토	이전규모	-
이전사유	○ 중국 항공기 부품업체와 연계한 중국 내 보잉 밸류 체인 형성 - 미국 시애틀에서만 생산하던 일부 기종의 공정을 중국에서 수행 (도색, 최종조립 및 항공기 인도 등) - 중국 항공부품 납품업체를 활용한 대형 밸류 체인 형성		

1-2 중국 → 동남아시아 지역 이전사례

[사례 1] 삼성전자 휴대폰 제조공장 베트남으로 이전 추진

업체명	삼성전자	모기업소재지	한국
업종	휴대폰 제조업	현지주력생산품	휴대폰, 가전제품
현재진출지역	중국, 동남아등	현재투자규모	-
현지매출규모	-	현지고용규모	-
현지진출연혁	○ 진출연도 : 1992년		
공장이전 계획지역	베트남 타이응우옌	이전규모	20억 달러
이전사유	○ 중국 인건비 급상승, 기술 및 정보유출위험 등이 주요요인 - 생산비 지속상승 중인 중국 대비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으로 이전 - 중국의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 既베트남 진출 제조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 추구 ○ 투트랙 전략의 일환 - 휴대폰, PC 제품 및 기타 가전제품 생산 공장은 베트남 및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 검토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은 중국내 생산 확대		

[사례 2] 일본 의류업체 Fast Retailing,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 추진

업체명	Fast Retailing	모기업소재지	일본
업종	의류 제조업	현지주력생산품	자체 브랜드 의류
현재진출지역	중국	현재투자규모	-
현지매출규모	-	현지고용규모	-
현지진출연혁	○ 진출연도 : 2003년 ○ 최초 투자규모 : 2천만 달러		
공장이전 계획지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전규모	-
이전사유	○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공장 생산 비중 늘릴 예정 - 현재까지 제품의 85%를 중국에서 제조 - 최근 중국 본토 지역의 인건비 지속 상승으로 중국 이외 지역에서의 생산량을 20~30%에서 50%로 증가시킬 계획 ○ TPP 체결 이후 베트남 지역 신규투자 및 증설계획 - 양질의 노동력, 양호한 투자환경, TPP체결에 따른 관세혜택		

[사례 3] 홍콩 의류업체 TAL 동남아로 생산 공장 이전 추진

업체명	TAL Group (聯業制衣)	모기업소재지	중국 홍콩
업종	의류 제조업	현지주력생산품	자체 브랜드 의류
현재진출지역	중국,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현재투자규모	-
현지매출규모	6억 달러	현지고용규모	25,000 명
현지진출연혁	○ 진출연도 : 1993년 ○ 최초 투자규모 : 3억 홍콩달러		
공장이전 계획지역	말레이시아, 베트남(예정)	이전규모	-
이전사유	○ TPP 원산지 규정에 따른 주요 수출제품 원가 절감 - 베트남 생산제품은 對美수출 시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중국 내 인건비와 생산비용 급상승 - 2007년 중국 남부에 생산 공장 건설시 해당기업 관계자는 최소 20년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급등하는 인건비와 생산비용으로 채산성 악화 - 기타 일본 무인양품(MUJI), 홍콩 晶苑集團(Crystal Group) 등 중국 남부에 집중되어 있던 의류·잡화 제조업 생산기지 이전 사례가 이어지며 의류제조업 클러스터 와해		

[사례 4] 대만 의류·신발 OEM 업체 동남아로 공장 이전 추진

업체명	宝成集團	모기업소재지	대만
업종	신발, 의류, 잡화	현지주력생산품	아디다스, 나이키 등 브랜드 신발
현재진출지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현재투자규모	-
현지매출규모	-	현지고용규모	-
현지진출연혁	-		
공장이전 계획지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전규모	-
이전사유	○ 인건비 및 기타 생산비용 급상승 - 인건비 상승으로 동관시와 중산시 공장에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생산라인 증설 ○ 중국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 최근 중국 정부의 저부가가치 산업, 노동집약적 산업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신발, 의류, 잡화 등 광둥 및 푸젠 일대에 밀집해 있던 기업들이 연쇄도산 및 업황 악화 중		

1-3 중국 → 기타지역 이전 및 공장 확장 사례

[사례 1] 중국 가전제품 제조업체, 브라질/인도로 생산기지 이전 추진

업체명	TCL Group	모기업소재지	중국 광둥 후저우(惠州)
업종	전자 제품 제조업	현지주력생산품	통신 설비, 전자 가전
현재 진출지역	중국 등	현재 투자규모	-
현지매출규모	1,045억 7,900만 위안	현지고용규모	-
현지진출연혁	○ 진출연도 : 1981년		
공장이전 계획지역	브라질, 인도	이전규모	-
이전사유	○ 해당 지역의 저렴한 생산비용 - 중국 대비 저렴한 인건비 - 현지생산기지 설립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기반 마련 - 러시아와 아프리카에도 생산기지 설립 계획		

[사례 2] 대만 전자기기 OEM 업체 팍스콘, 인도로 생산기지 이전 추진

업체명	팍스콘	모기업소재지	대만
업종	전자제품 제조업	현지주력생산품	전자기기
현재 진출지역	중국 대만, 중국 본토, 동남아시아 등	현재 투자규모	-
현지매출규모	-	현지고용규모	-
현지진출연혁	○ 진출연도 : 1988년 - 2020년까지 인도에 10~12곳의 생산 공장을 신축하고 최소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힘 (팍스콘 CEO 郭台銘, 7월 15일 대만 매체 보도)		
공장이전 계획지역	인도	이전규모	50억 달러
이전사유	○ 높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신흥시장에 진출 -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 인도사업부 책임자는 앞으로 대부분의 제품을 인도에서 제조할 것이라고 밝힘.		

2 베트남에서 포착된 기업 이전 동향

2-1 해외 → 베트남 이전 및 공장 확장 사례

[사례 1] 중국 의류업체 Yulun 베트남 이전

업체명	Yulun	모기업소재지	중국
업종	섬유 및 염색	현지주력생산품	면사, 원사, 팬시 안
현재진출지역	베트남 / Nam Dinh성	현재투자규모	6천8백만 달러
현지매출규모	1억 달러	현지고용규모	1,200명
현지진출연혁	○ 진출연도 : 2014년 ○ 최초 투자규모 : 68백만 달러		
이전사유	○ TPP 원산지 규정 충족을 위한 원단 생산 공장 설립		

[사례 2] 중국 의류업체 Gain Lucky 베트남 이전

업체명	Gain Lucky	모기업소재지	중국
업종	의류	현지주력생산품	메이커 의류 생산
현재진출지역	베트남 / Tay Ninh성	현재투자규모	3억 달러
현지매출규모	-	현지고용규모	'16년 8월 가동
현지진출연혁	○ 진출연도 : 2015년 11월 24일 ○ 최초 투자규모 : 300,000 천 달러		
이전사유	○ 미국이 주요 수출시장으로 TPP활용을 위한 베트남 진출		

[사례 3] 중국 의류업체 Worldon 베트남 이전

업체명	Worldon	모기업소재지	중국
업종	디자인 및 의류	현지주력생산품	원사, 원단, 고급의류
현재진출지역	베트남 / 호치민시	현재투자규모	3억 달러
현지매출규모	9천만 달러	현지고용규모	8,000 명
현지진출연혁	○ 진출연도 : 2014년 2월 19일 ○ 최초 투자규모 : 300,000 천 달러		
이전사유	○ TPP 원산지 규정 충족을 위한 원단 생산 공장설립		

[사례 4] 이스라엘 의류업체 Delta Galil 베트남 이전

업체명	Delta Galil	모기업소재지	이스라엘
업종	의류	현지주력생산품	의류
현재진출지역	베트남 / Binh Dinh성	현재투자규모	1천3백만 달러
현지매출규모	30,000 천 달러	현지고용규모	1,000명
현지진출연혁	○ 진출연도 : 2015년 1월 25일 ○ 최초 투자규모 : 13,000 천 달러		
이전사유	○ 원자재-완제품 생산으로 TPP 원산지 규정 기준 충족		

[사례 5] 효성 베트남 이전

업체명	효성	모기업소재지	한국
업종	원사 및 원단	현지주력생산품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스틸코드
현재진출지역	베트남 / Dong Nai성	현재투자규모	6억6천만 달러
현지매출규모	1,200,000 천 달러	현지고용규모	7,000 명
현지진출연혁	○ 진출연도 : 2015년 4월 21일 ○ 최초 투자규모 : 368백만 달러		
이전사유	○ TPP 활용을 위한 투자 확장(기존 생산력 증대)		

[사례 6] 대만 원사 업체 Polytex Far Eastern 베트남 공장 투자 확대

업체명	Polytex Far Eastern	모기업소재지	대만
업종	원사 생산	현지주력생산품	면사제품, 편직물, 필라멘트섬유
현재진출지역	베트남 / Binh Duong성	현재투자규모	2억7천4백만 달러
현지매출규모	N/A	현지고용규모	N/A
현지진출연혁	○ 진출연도 : 2015년 6월 29일 ○ 최초 투자규모 : 274,000 천 달러(1단계)		
공장이전 계획지역	투자 확장(2단계)	이전규모	10억 달러
이전사유	○ 원자재-완제품 생산으로 TPP 원산지 규정 기준 충족		

2-2 베트남 → 해외 이전 및 공장 확장 사례

[사례 1] Toyota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공장이전 추진

업체명	Toyota	모기업소재지	일본
업종	자동차	현지주력생산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현재진출지역	베트남 / Vinh Phuc성	현재투자규모	-
현지매출규모	확인 불가	현지고용규모	7,900명
현지진출연혁	○ 진출연도 : 1995년 9월 ○ 최초 투자규모 : 89.6백만 달러		
공장이전 계획지역	태국(잠정)	이전규모	잠정
투자사유	○ AEC 출범으로 인한 자동차 완성품 수입관세 철폐 - 베트남의 완성차 수입비용이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여 생산하는 것 보다 저렴해져 베트남 현지 생산 경쟁력 약화 - 생산비용이 베트남 보다 20% 낮은 태국으로 이전 검토		

3 인도네시아에서 포착된 기업 이전 동향

3-1 인도네시아 → 해외지역 이전 및 공장 확장 사례

[사례 1] 싱가포르 기계업체 PT Interplex 베트남으로 이전 추진

업체명	PT Interplex	모기업소재지	싱가포르
업종	기계부품제조	현지주력생산물	일반기계 및 전기기기 부품
현재진출지역	인도네시아 / Batam	현재투자규모	6백만 달러
현지매출규모	비공개	현지고용규모	2,000명
현지진출연혁	○ 진출연도 : 1996년 ○ 기타 - 싱가포르에 본사소재, 13개국에 40개 공장운영 - 정밀금속 스탬핑, 포밍, 정밀 Cold Forged 스탬핑, 표면 처리 등		
공장이전 계획지역	베트남	이전규모	6백만 달러
이전사유	○ 베트남의 TPP, EU-CEPA가입 - 원자재 수입, 완제품 수출 양 측면에서 비용절감 가능 ○ 노동문제 -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 강성 노조 및 잦은 파업		

[사례 2] 인도네시아 신발제조업체 PT Volma 베트남으로 이전

업체명	PT Volma	모기업소재지	Indonesia
업종	신발제조	현지주력생산물	신발
현재진출지역	인도네시아 / Jombang	현재투자규모	비공개
현지매출규모	비공개	현지고용규모	3,500명
현지진출연혁	○ 진출연도 : 2012년* * 2016년 4월 초에 이미 베트남으로 이전		
공장이전 계획지역	베트남 (이전완료)	이전규모	비공개
이전사유	○ 베트남의 TPP, EU-CEPA 가입 - 동사의 신발제품 수요는 대부분 미국, 유럽에서 발생 - 이전 시 현재의 17~30%의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됨 ○ 노동문제 - 잦은 노동 분쟁 등을 피하기 위함		

4 태국에서 포착된 기업 이전 동향

4-1 태국 → 해외지역 이전 및 공장 확장 사례

[사례 1] 일본 전자제품 업체 Panasonic 말레이시아로 이전 추진

업체명	Panasonic Appliances	모기업소재지	일본
업종	전기제품	현지주력생산품	세탁기, 냉장고 등
현재진출지역	태국 / 차츰사오	현재투자규모	7,691만 달러
현지매출규모	1억 4,423만 달러	현지고용규모	18,000 명
현지진출연혁	○ 진출연도 : 2006년 ○ 최초 투자규모 : 49억 3,000만 달러 ○ 태국에 12개 제조공장, 5개 판매사무소, 1개 R&D센터 운영		
공장이전 계획지역	말레이시아 / 세랑고	이전규모	-
이전사유	○ AEC 출범에 따른 역내 수입 무관세 및 육상 물류비 절감 - 말레이시아 제조 후 태국에서 수입 시 무관세 혜택 ○ 파나소닉社 장기 회사 발전 전략의 일환 - (태국) 대형가전제품 생산, (말레이시아) 전기기기 생산		

[사례 2] 삼성전자 TV 생산라인 베트남으로 이전 추진

업체명	삼성전자	모기업소재지	대한민국
업종	전자제품	현지주력생산품	휴대폰, 에어컨, TV, 냉장고
현재진출지역	태국 / 촌부리	현재투자규모	14억 1,400만 달러 (2014)
현지매출규모	39억 6,400만 달러 (2014)	현지고용규모	4,500 명
현지진출연혁	○ 진출연도 : 1988년 ○ 최초 투자규모 : 3,429만 달러 ○ '15년 1분기 TV생산중단 → '16년 1분기 베트남 생산라인 가동		
공장이전 계획지역	베트남 / 호치민	이전규모	5억 6,000만 달러
이전사유	○ AEC 출범에 따른 역내 관세 철폐 - 관세 철폐로 베트남 제조 TV 수입 시 내수제품과 동일 취급 ○ AEC 출범에 따른 물류량 증대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 ○ 베트남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사용 (임금, 태국의 1/2) ○ 삼성사의 TV 생산 거점 효율화 작업 추진의 일환 - 호치민에 '소비자 가전 복합단지' 조성으로 생산효율성 향상		

[사례 3] 태국 석유·화학·에너지 업체 PTT ASEAN 전역 투자확대 추진

업체명	PTT	모기업소재지	태국
업종	석유화학 및 에너지	주력생산물	석유, LPG, 산업용 연료, 윤활유, 가스, 석유화학 제품, 천연가스 등
현재 진출지역	태국	현재 투자규모	248억 2,654만 달러
현지매출규모	504억 8,376만 달러	현지고용규모	4,382 명
연혁	○ 설립연도 : 1978년 ○ 상장 연도 및 규모 : 2001년, 571.43 백만 달러 ○ 기타 : 가스, 오일, 석유화학 사업부 등 7개 사업부로 구성		
투자확대지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투자규모	5억 7,143만 달러 (2016-2020 년)
내용 및 투자확대사유	○ AEC 출범과 더불어 2020년 까지 역내 최대 브랜드화 목표 - 국·내외 주유소 시설 개선 및 증설(2억 2,857만 달러,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필리핀), 석유 소매 마케팅 사업(5,714 만달러), LPG 사업(7,143만 달러), 기타 인프라 시스템 투자 ○ AEC 출범에 따른 사업 기회 최대한 활용 - 태국으로부터 AEC내 국가로 석유 및 가스 운송 시 비용 절감, 역내 국가 간 접근성 증대 활용 - 새로운 파트너 모색, 역내 경쟁력 강화		

5 말레이시아에서 포착된 기업 이전 동향

5-1 말레이시아 → 해외지역 이전 및 공장 확장 사례

[사례 1] Intel 생산기지 중국·베트남으로 일부 이전 추진

업체명	Intel Products(M) Sdn Bhd	모기업소재지	미국
업종	전기전자	현지주력생산품	모기판(Motherboard)
현재진출지역	말레이시아 Kedah주 Kulim 산업단지	현재투자규모	350만 달러(자본금) 투자액은 미공개
현지매출규모	25억 달러(2014년)	현지고용규모	620명 (설립시)
현지진출연혁	○ 진출연도 : 1972년 설립 ○ 최초 투자규모 : 350만 달러 ○ '72년, Penang에 제조시설을 투자 ○ '95년 Kedah주 Kulim산업단지에 모기판(Motherboard) 생산공장 설립		
공장이전 계획지역	베트남 / 호치민 중국 / 청두	이전규모	-
이전사유	○ TPP 출범에 따른 글로벌 전략생산기지로 베트남 육성 ○ 내륙도시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중국시장 공략		

[사례 2] 삼성전자 디스플레이부문 생산기지 베트남으로 이전 추진

업체명	Samsung Electronics Display(M) Sdn Bhd	모기업소재지	대한민국
업종	전기전자	현지주력생산품	TV용 LCD모니터
현재진출지역	말레이시아 / 세렘반	현재투자규모	3천만 달러(자본금) 투자액은 미공개
현지매출규모	10억 달러(2014년)	현지고용규모	620명(설립시)
현지진출연혁	○ 진출연도 : 1995년 설립 ○ 최초 투자규모 : 3천만 달러 ○ 기타 : LCD모니터, LCD 및 플라즈마TV 자동화 제조시설생산		
공장이전 계획지역	베트남 / 호치민 사이공하이테크파크	이전규모	-
이전사유	○ TPP 출범에 따른 글로벌 전략생산기지로 베트남 육성 - 태국, 말레이시아의 기존 가전 생산시설을 베트남으로 통합 - 저렴한 인건비와 중국시장 및 TPP시장 공략 목적		

6 멕시코에서 포착된 기업 이전 동향

6-1 해외지역 → 멕시코 이전 및 공장 확장 사례

[사례 1] 미국 타이어 기업 Goodyear 멕시코 진출 추진

업체명	Goodyear	모기업소재지	미국
업종	타이어	현지주력생산품	타이어
현재진출지역	미국, 중국, 브라질 등	현재투자규모	-
현지매출규모	-	현지고용규모	-
현지진출연혁	○ '15.7.28 멕시코 진출계획 발표 - 1,000명 고용, 연간 타이어 600만개 생산 규모		
공장이전 계획지역	멕시코 San Luis Potosí시	이전규모	5억5천만 달러
이전사유	○ NAFTA 활용한 북미 지역 수출		

[사례 2] 프랑스 타이어 기업 Michelin 멕시코 공장 추가설립 추진

업체명	Michelin	모기업소재지	프랑스
업종	타이어	현지주력생산품	타이어
현재진출지역	중국, 인도, 미국, 멕시코 등	현재투자규모	-
현지매출규모	-	현지고용규모	-
현지진출연혁	○ '16년 멕시코 진출계획 발표 - 1,000명 고용, 연간 타이어 500만개 생산 규모		
공장이전 계획지역	멕시코 Guanajuato	이전규모	5억1천만 달러
이전사유	○ NAFTA, EU-FTA, TPP 관세혜택		

[사례 3] 독일 자동차 기업 BMW 멕시코 공장 설립 추진

업체명	BMW	모기업소재지	독일
업종	자동차	현지주력생산품	자동차
현재진출지역	없음	현재투자규모	-
현지매출규모	-	현지고용규모	-
현지진출연혁	○ '14.7.3 멕시코 진출계획 발표 - 1,500명 고용, 2019년부터 연간 150,000대 생산 규모		
공장이전 계획지역	멕시코 Guanajuato	이전규모	5억1천만 달러
이전사유	○ NAFTA, EU-FTA, TPP 관세혜택		



작성자

- ◆ 6개국 무역관 조사담당직원
- ◆ 통상전략팀 김인태 사원



Global Market Report 16-028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글로벌생산기지 변화동향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6년 5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ISBN : 979-11-87219-55-2 (95320)

Copyright © 201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Market Report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글로벌생산기지 변화동향
